

김응준시선집

김응준 지



사랑은 나무가 아니다

사랑은 나무가 아니다
사랑은 뿌리를 령혼의 고지에 박고
가지를 육신의 대지에로 내리뻗치는
나무와는 꺼꾸로 흐르는 룬리학이다

연변인민출판사

김응준시선집

김응준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인덕

책임교정: 남금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金应俊诗选集: 朝鲜文 / 金应俊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4

ISBN 978-7-5449-0581-7

I. 金…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59393号

金应俊诗选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3 字数: 3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81-7 (民文)

版次: 2009年4月第1版

2009年4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저자 미국 시카고에서(1996. 6.)



김철, 리상각시인과 함께(2004. 2.)



1980년대초 단란한 가정일동



부인 김순옥녀사와 함께



연변인민출판사 문우들과 함께(1994. 11.)



연변시인협회 현지창작팀 훈춘 방천에서(2006. 7.)

머리말

김 철

시인 김웅준씨가 가로되 자기는 “시에 절어 김치가 되었다.” 한다. 아마 그런가보다. 그의 몸에서는 “김치냄새”가 물씬물씬 난다. 시큼시큼하면서도 향기로운 냄새,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내음일것이다. 우리 모두의 몸에서는 김치내가 난다. 그러나 시가 익어 김치내를 풍기는것은 김웅준씨만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일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의 일생은 시에 폭 절어있다.

내가 그를 안것은 20세기 중엽에 쓴 데뷔작 “령을 넘으며”를 세상에 내놓은 때부터이다. 그때 나는 신문사 문예편집으로 있었다. 시를 먼저 보고 후에 사람을 보았는데 시에서의 느낌처럼 몸이 가날프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멋진 문학도였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장차 꼭 훌륭한 시인이 되리라는 기대감에서 그를 눈여겨보고있었다.

후에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훈춘교중에 가 교편을 잡다가 현정부에 나가 무슨 벼슬자리 하나를 얻었다고 했

2 · 김응준시선집

다. 정부에 가 벼슬을 하면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연변작가협회 책임자로 있을 때 그를 때오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가 있는 훈춘현에서는 그가 인재인지라 놓지를 았았다. 여러모로 꾸셔서 끝내 때왔다. 나는 그를 작가협회 비서장으로 았히려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했다. 후에 나는 중국작가협회로 전근되어 연변을 떠나서 멀리 타방에 와있으면서도 그를 늘 지켜보고있었다.

그 “김치”가 시름해지면 어쩔가, 맛이 변하면 어쩔가, 늘 근심이였다. 이제 그도 인생의 해넘이를 하고있다. 그 석양은 대체로 황홀하다. “김치”맛도 변하지 았았다. 그것이 나는 기뻐고 다행스러웠다.

그는 시에 미친 사람이다. 조년에 아버지를 잃고 중년에 안해를 여의고 만년에 자식을 았세웠지만 인생고를 딛고 서서 줄곧 시농사만을 지어왔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돈도 벼슬도 아랑곳하지 았고 인생의 모진 찬바람속에서도 오로지 시만을 쓰고 시에 미쳐버린 순수한 문학인이다. 그의 신념에는 드팀이 았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굴함없이 싸워온 투사이기도 하다.

그는 다수확농군이다. 그의 마당에는 시냇가리가 높이 솟아있다. 어찌 보면 그의 붓끝에서는 시의 폭포가 쏟아져 내린것 같기도 하다. 놀랄 정도로 쏟아져나오는 시의 석간수, 그것이 다 주옥이나 알찬 난알이라고는 할수 았지만 그 정열이 대단하다. 그는 정열의 열화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청춘인가보다. 고회를 넘은 사람이

지만 쏟아져나오는 사랑시를 보면 자못 놀랍기도 하다. 시인은 영원히 청춘이라는 말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인가싶다.

그의 시세계는 광활하다. 생명의식, 겨레의 열, 평민의식, 사랑의 미, 폭넓은 기행시... 시인의 말 그대로 그는 다방면의 인간세계에 눈길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1999년에 출간한 시집 《남자와 여자와 사랑과 시》중의 시 “진달래”, “외로운 마을”, “봄우뢰 울자”와 2002년에 펴낸 시집 《그리움 삼만리》중의 “나이아가라폭포”, “미국은 길다”, “나의 가슴은 묘지” 그리고 근년에 출간한 시집 《사랑새를 기다린다》중의 “초록색 그리움”, “님은 하늘”, “나비에게”와 같은 시들은 독자의 호평을 받고있다.

그에게도 한때 그늘진 시절이 있었다. 시가 정치를 바짝 따르고 만세를 부르고 앵무새노릇을 하던, 우리 시단 모두의 불행한 시대, 그도 당시의 흐름에 따를수 밖에 없었던, 그런 한때가 있었다.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시의 탈바꿈을 하고있는 그의 진지한 노력은 자못 소중하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50 성상을 넘어 지은 그의 시농사, 더 알찬 낱알이 쏟아져나오리라는걸 기대하면서, 또 폭 절은 그의 “김치”가 날로 더욱 향기롭기를 기원하면서 서투른 “머리말”에 종지부를 찍는다.

2009년 정월, 북경에서

차례

머리말 / 김철	1
----------------	---

제1부 초록색 그리움

초록색 그리움	3
첫 키스(3)	4
첫날밤(1)	5
그리움(1)	6
아득한 그리움	7
그리움 삼만리	8
나비에게	10
초승달(2)	11
반달이 가는 밤에	12
중추명월	13
샘터에서	14
종달새야	16
순이야 오너라	18
신기루	19
이불단	20

2 · 김응준시선집

남새시장 오후 5시	21
그해 여름 로맨스	22
갈림길	24
님은 하늘	25
슬픈 레스토랑	26
사시나무 허리에 사랑 감졌네	27
숲속에서	29
최후의 밀회	30
님의 풍경	32
사랑의 감미로운 3부곡	33
금반지	34
사랑새를 기다린다	35
파랑새	36
사랑은	37
사랑은 나무가 아니다	38
사랑사시가	38
사랑은 천국	39
수레바퀴	40
한 녀자는 한 학교	42
사랑이여, 한그루 꽃나무였으면	43
동방화촉	44
장미꽃의 조락	45
공원의 추억	46
사랑은 고상한 2인창이다	47

모두 주고파	48
초련의 뒀안길	49
연동교	50
너를 기다린다	51
한 꽃송이와 호랑나비	52
네가 없어서	53
정이면 다야	54
소야곡	55
산 넘어 구름 넘어	56
사랑의 애가[시초]	57
원앙침	57
금반지	58
님과 딸	59
금잔디 피는 산에서	60
별찌	63
고요한 내가에서	65
눈 오는 날의 명상	67
모래톱에 쓰는 이름	68
물새	70
꿈에 본 사랑	71
사랑의 메아리	73
내 사랑의 황야에	75
같이 가자	76
저녁놀속에	78

4 · 김응준시선집

재혼	79
영원에 피자	80
생별[련작시, 발취]	81
Y에게[련작시, 발취]	84

제2부 옛 나루터에서

진달래	95
두만강	96
두만강 여울소리	97
두만강가에서	98
두만강의 우수	99
어머니장백산	100
장백산	101
장백폭포	102
장백온천	102
장백산 봉우리	103
백발 삼천장	104
옛 나루터에서	104
백학	106
백조	107
진달래의 전설	108
나의 소원	109

해란강	110
모아산	111
오누이산	112
민속촌	113
우리 말 우리 글	114
다듬이소리	116
열두발 상모	117
뿌리 깊은 나무	118
토장국을 좋아하는 리유	119
검은 머리발	120
족보 세우자	121
연변의 봄	122
어곡전	124
뿌리	125
하얀 별	127
단군 송가	129
훈민정음	132
황성 옛터	134
호태왕비	135
장군묘	136
김삿갓	138
남국의 감나무	140
동해	141
억새밭	142

6 · 김응준시선집

한강	143
서울	144
에밀레종	145
림진각에서	146
남으로 나는 기러기떼	147
아리랑노래	148
맨해튼 32번지	150
싸할린동포들에게	151

제3부 그리운 고향

고향(1)	157
고향(2)	157
그리운 고향	158
향수	159
환고향	160
흙	161
내물은 나의 동년	162
고향의 땅과 함께	163
고향 산천	164
태평구	165
삼안강	166
고향집(1)	167

고향집(2)	168
진달래동산에	170
고향의 산에는	171
고향의 달	172
향수가 설레이면	173
외나무다리	174
뻘꾸기 울음	175
무인공산	176
선녀들도 부러웁게	177
매돌	178
고향에 진 빛	179
부르하통하	180
방천	182
한 교외마을	183
한 시골마을에서	184
외로운 마을	186
외로운 간이역	187
월청의 달밤	188
령을 넘으며	189
사향가	191
삼만리 향수	193
락토와 황야	194
고향과 사랑	194
봄이 온다 총총	195

8 · 김응준시선집

연변 살자	197
연변사람[련작시, 발취]	198
고향[련작시, 발취]	215

제4부 세월의 서산에 앉아서

기념비	225
겨울소나무	226
털사탕	227
바위	228
산이 산인 리유	229
폭포	230
시인	231
세월	232
18세	232
청춘	233
옥수수수염	233
세월의 서산에 앉아서	234
우리네 세대	235
소꿉시절	237
꿈밭	238
고난의 동년	239
짚신	240

식지	241
긴긴 꼬리표	242
일년감	243
참회	244
자서전	246
나의 어깨	248
나의 발	249
황야	250
오늘	251
나누자	252
한길을 간다	253
일문일답	254
행복	255
술에 취한 날	256
해처럼	257
황혼	257
나무는 하늘을 향해 걷는다	259
물은 어찌 아래로만 흐르는가	260
봄꿈	261
봄은 보모이다	262
여름이 간다	263
사시절(2)	264
진달래꽃사태	265
허수아비	266